

海外競爭力 強化를 위한 海外進出多迎化政策



李 明 奎
財務部 國際金融局 海外投資課 行政事務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현재 60여개국에 이르며 가장 큰 교역시장인 북미지역과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및 저임금의 동남아시아의 투자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자부문의 해외투자는 첨단기술 도입, 수출애로 타개 등 중요정책의 목적 활용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유망한 업종이라 하겠다.

I.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해외투자의 필요성

1.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

우리 경제는 그 동안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86년 이후 고도성장과 동시에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는 바, 향후 대외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 한 국제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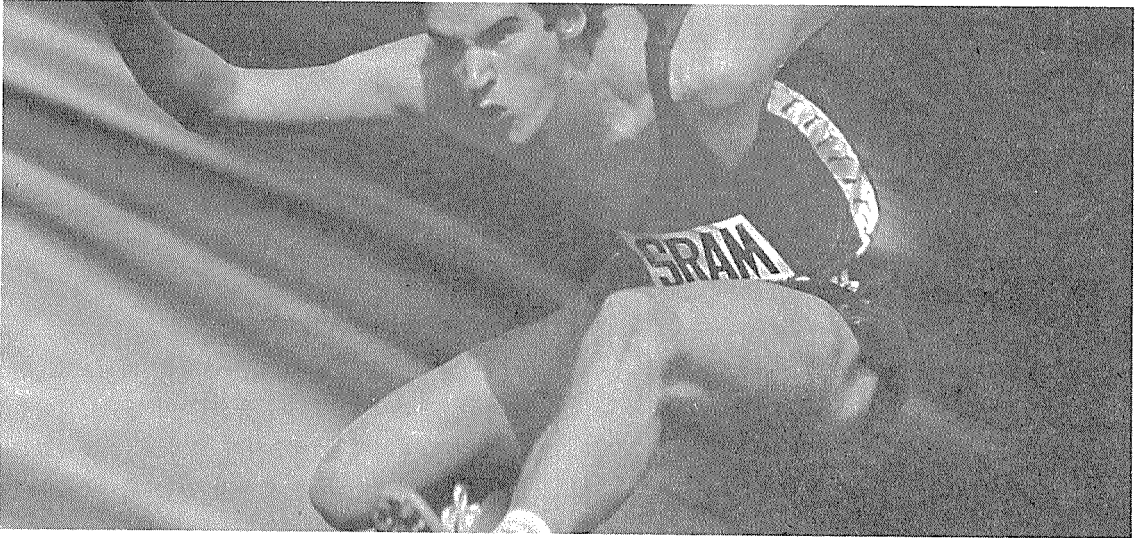
	'85	'86	'87	'88
경제성장률(%)	5.1	12.3	12.2	8.0
경상수지(억弗)	△ 9	46	98	70
총 외채(억弗)	468	445	356	310

2. 국제수지 흑자전환의 원인과 효과

국제수지 흑자전환은 저유가, 저금리, 달러 약세 라는 소위 「3저현상」에 따른 대외여건의 호전과 물가안정, 설비투자 확대 등 대내적 경제체질 강화 노력의 지속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국제수지 흑자전환은 수입확대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 수용,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외채상환을 통한 대외신인도 상승 등의 유리한 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해외부문 통화증발에 따른 통화관리상 애로, 임금인상, 물가상승 압력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개방 및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개별기업에 대해서 임금상승 등으로 국내사업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85	'86	'87	'88(1-4)
경 상 수 지 (억弗)	△ 9	46	98	39
무 역 수 지 (억弗)	△ 0.2	42	77	31
환 율 절 상 (%)	△ 7.6	3.2	8.0	6.6
총 통 화 증 가 율	11.8	16.8	18.8	18.0
소 매 물 가 (%)	3.2	1.4	6.1	5.0
명목임금상승률(%)	9.2	8.2	9.9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지역적 편중과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취약점이다.

3.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이러한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국제수지 흑자재원을 해외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쿼타 규제 등의 선진국 무역장벽을 제3국 생산을 통한 우회수출 방식이나 현지 생산 방식으로 극복하여 대외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또한 수출채산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사양화가 불가피한 산업의 경우, 개도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국내 임금상승 및 원화 절상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는 통화증발을 흡수함으로써 적정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하고 원유,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 임산물, 수산물 등 주요자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의 축적, 국제경영 능력의 제고, 첨단기술의 보다 신속한 습득,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투자대상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II.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1. 해외투자의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68년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투자를 시초로 하여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국제

수지 흑자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86년부터 급증하였다.

	'68-'84	'85	'86	'87	'88(1-5)	누 계
건 수	432	11	32	59	42	576
금 액 (百万弗)	445	31	157	333	68	1,034

업종별로는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에는 주로 자원개발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68-'83중 52.1%), 최근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 회피를 위해 제3국 우회진출 및 현지 조립생산 방식의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84-'88중 42.7%)

업종별 투자현황('88. 5 말 현재)

	광 업	제조업	무역업	임 업	건설업	기 타	합 계
건 수	13	135	264	.10	51	103	576
금액(百万弗)	426	336	108	52	33	79	1,034
(금액기준, %)	(41.2)	(32.5)	(10.2)	(5.0)	(3.2)	(7.6)	(100.0)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국가수는 아프리카, 남양군도, 공산권 등을 포함하여 현재 60여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의 가장 큰 교역시장인 북미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며 임금이 낮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66.6%)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결과 국내에 대한 과실송금액

지역별 투자현황('88년 5월말 현재)

	북미	동남아	중동	대양주	유럽	기타	합계
건수	217	169	33	34	55	102	576
금액(百万弗)	423	266	202	87	26	31	1,034
(금액기준, %)	(40.9)	(25.7)	(19.5)	(8.4)	(2.5)	(3.0)	(100.0)

은 '87년 6월말 현재 1억 8,700万弗에 이르고 있으며,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20% 내외로서 '87년 6월말 현재 131억弗의 순수출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은 '87년 6월말 현재 6,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문제점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국민경제력에 비해 해외투자 실적이 저조한바, '86년중 처GNP 비율은 0.7%로서 미국의 6.2%, 일본의 3.0%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해외투자지역이 주요교역 대상지역인 북미, 동남아에 편중(66.6%)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취약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 지역비중

(금액기준, %)

	북미	동남아	중동	대양주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한국('68-'88)	40.0	25.7	19.5	8.4	2.5	1.8	1.2
일본('51-'78)	37.9	19.1	2.2	4.8	15.1	18.1	2.8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88년 5월말 현재 2,600万弗로서 전체의 2.6%에 불과하여 일본의 '84년말의 16.0%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실정인데 이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영 능력 미비, 정보능력 불충분,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내용

1. 해외 투자 허가제도의 개선

정부는 '87~'88년중 수차에 걸쳐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를 단행하여 허가제도 개선 등 해외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투자 신고제 대상의 확대(현재 투자액 100万弗 이하),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축소(현재 투자액 500万弗 초과에 한정), 투자자요건 중 자본요

건 폐지, 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연인의 해외투자 허용(투자액 100万弗 이하), 현지 이익금의 국내회수 의무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경우도 과거에는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의견조회 등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절차를 모두 폐지하여 다른 업종과 동일한 투자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2. 해외투자 지원제도의 확충

최근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의 규모를 증액 책정하고 지원금리(현재 연 8.5%, 중소기업은 연 7%), 지원기간(현재 10년 이내), 융자비율(현재 80% 이내, 단 중소기업은 90% 이내)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였고 현지법인의 장기사업자금도 수출입은행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의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세제지원으로는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고(현재 연 15%, 단 자원개발은 연 20%), 또한 투자정보지원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해외투자상담센터」, 수출입은행내에 「해외투자상담실」을 설치하여 해외투자환경, 합작 회망국, 희망업체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Ⅳ. 해외투자 정책방향

1. 투자사업의 다양화 추진

기업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해외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려사업 규정방식을 금지사업 규정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동산 투자도 대폭 완화하여 업무용 뿐 아니라 비업무용, 주거용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그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첨단 기술습득사업, 사양산업설비 이전사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 투자지역의 다변화 추진

한편 투자대상국(개도국) 대외채무를 할인 매입하여 해당국 중앙은행에서 현지통화로 교환한 후 현

지투자케 하는 Debt-Equity SWAP 방식에 의한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보험의 보상대상 확대,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지속적 추진, 국제투자 보증기구(Multilatera Investment Guaranty Agency; MIGA)의 적극 활용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투자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투자는 투자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한 Risk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지역의 투자환경, 합작희망기업체 명단을 투자정보 제공 지원강화를 위해 연내에 수출입은행에 「해외투자정보센터」 설치를 검토중에 있다.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투자업체의 다변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이미 금융지원 등에서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담보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 금융·세제지원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새로 발족될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통해 해외투자 상담, 합작계약서 작성안내, 해외투자자에 대한 중·단기 연수 등 중소기업해외투자자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V. 결 어

최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은 전례없이 커져 해외투자상담, 자금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조건이 나쁜 외채의 조기상환이 거의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국제수지 흑자재원을 해외투자재원으로 활용, 대외자산 증가를 통한 순외채 감소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해외투자를 단기적·투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국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종의 해외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대체로 제조업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부문의 해외투자는 첨단기술도입, 수출애로 타개 등 중요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아 매우 바람직한 업종일 뿐 아니라 동시에 유망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외환관리규정상으로도 해외투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해외직접투자), 「첨단기술도입,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간접투자도 허용하여 첨단기술도입 등을 위한 제조업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인정넘친 서울대회 다시 찾는 관광한국